불황에 늘어나는 식당…요식업 고용 작년비 2.2%⬆

광주지역 최근 3년새 900여곳 늘어…99%는 3년내 폐업

경기침체로 인한 구인시장의 위축 속에서도 요식업과 관련된 구인 수요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이 창업으로 이어지면서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요식업종에서 고용을 늘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광주 취업 전문 사이트 잡사랑방(jobsrb.co.kr)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광주지역 요식업 누적 구인건수는 총 15만17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고기 전문점과 한식·찜·탕 전문점 관련 구인이 늘었다. 고기 전문점은 4만4464건에서 4만5554건으로 2.4%가 증가했고 한식·찜·탕 전문점은 2만2216건에서 2만4787건으로 11.5%나 급증했다.

실제 잡사랑방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광주시 식품접객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까지 1만8731곳에 불과했던 요식업 수는 9월 말 기준 1만9624곳으로 3년 새 900여 곳이 늘어나면서 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함께 청년실업난까지 맞물리면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취업 대신 창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식 전문점과 고깃집 관련 구인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데는 가장 대중적인 업종인 데다 초보자들도 손쉽게 창업할 수 있고, 업종 전환도 쉬워 다른 업종에 비해 선호도가 높다는 게 잡사랑방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신규 업체의 증가와 함께 폐업률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외식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업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광주전남 자영업의 현황'에 따르면 창업 대비 폐업률(3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은 99.3%로 전국(95.9%) 평균치보다 3.4%포인트나 높다.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대형 프랜차이즈의 골목상권 진입까지 겹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00명이 창업해도 1명이 성공하기 힘든 것이 광주지역 요식업종 창업 현실이다.

박영주 잡사랑방 팀장은 "먹는 장사가 남는 장사란 말은 이미 옛말이 됐고, 경기 불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외식시장"이라며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예비창업자라면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야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아파트 분양 완료

35개동 3726가구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선수촌(이하 U대회 선수촌) 아파트 분양이 완료됐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U대회 선수촌 아파트 3726가구의 분양이 마감됐다.

지난해 7월 조합원 분양에서는 97.1%라는 높은 계약률을 보였지만, 일반분양에서는 500여가구가 미분양되는 등 저조한 분양실적을 보여왔다. 한 때 미분양이 지속되자, 시공사 측은 사업 참여 당시 광주시가 약속한 대로 일반분양 미분양 가구를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률 31%인 선수촌 아파트는 오는 2015년 3월까지 3726가구, 지상 5~33층 건물 35개 동이 지어진다. U대회 기간 선수촌으로 활용한 뒤 2016년 초 입주하게 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10대 증권사 2년간 직원 1700명 줄어

최근 2년간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며 10대 증권사 직원이 1700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연봉자로 통하는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도 100명 가까이 줄었다.

증권사들은 주식거래 감소로 수수료 수익이 계속 줄고 있어 인력 구조조정이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대 증권사의 9월 말 현재 직원 수는 2만4703명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 9월 말(2만6438명)보다 1735명이 줄었다. 이 기간에 삼성증권 직원은 3733명에서 3163명으로 570명 줄었고 동양증권은 3044명에서 2481명으로 563명 감소했다. 삼성증권은 인력의 15.3%, 동양증권은 19.5%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직원도 2년간 2166명에서 1784명으로 382명(17.6%)이 줄었고 하나대투증권은 1887명에서 1679명으로 208명(11.0%) 감소했다.

또 대신증권은 175명(7.5%),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12명, 7명이 각각 감축됐다.

고액 연봉자인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해 가지는 못했다.

전체 증권사 애널리스트 수는 2011년 9월 말 1460명에서 올해 9월 말 1364명으로 96명(7.6%) 줄었다. 그동안 증권사들이 이처럼 대규모 인력조정에 나선 것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증시가 침체에 빠지면서 거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북녘 어린이에 털장갑 털목도리를

지난 16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북녘 어린이에게 털실·손뜨개 물품 보내기' 봉사활동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하이트진로 情나눔 참이슬 봉사단', 시민봉사자 등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참이슬 봉사단은 이날 남북교류협의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하이트 진로 제공〉

정준양 포스코회장 결국 사퇴

이사회에 사의 표명…내년 3월 주총 새회장 선임

정준양 포스코그룹 회장이 15일 이사회 의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포스코는 이날 정 회장이 이영선 이사회 의장에게 포스코 회장직에 대한 사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 의장에게 사의를 밝힌 뒤 CEO(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CEO를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내년 3월 정기 주총까지는 회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오늘 이사회가 열린 것은 아니고 정 회장이 이사회 의장에게 별도로 사의를 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 회장이 사의를 표시함에 따라 포스코는 이사회에서 CEO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CEO 선임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포스코 정관에 따르면 CEO 인선절차는 우선 CEO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CEO후보가 될 사내이사 후보 1인을 주총에 추천하고, 주총을 통과하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 최종 선임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임기 중 사임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현직 CEO는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승계 또는 연임의사를 이사회 의장에게 표명하도록 돼 있다.

차기 포스코 회장으로 10명 안팎의 내외부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한우 매출, 5년만에 닭고기 추월

2008년 역전 당한 이후 올 들어 판매량 재역전

최근 10여년간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육류 소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8년 이후 5년 만에 한우가 닭고기 매출을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롯데마트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축산물 매출을 살펴본 결과, 한우 매출이 닭고기(계육+계란)를 넘어섰다.

최근 국내 1인당 육류 소비량을 살펴보면 2004년까지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순으로 소비가 이뤄졌다. 그러나 웰빙 열풍이 불면서 닭 가슴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2005년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순으로 순위가 변동됐다.

롯데마트에서도 한우 매출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닭고기보다 앞섰으나, 2008년부터는 닭고기 매출이 급증해 흐름이 역전된 이후로 작년까지 지속 닭고기에 뒤쳐진 상태를 유지해왔다.

올해는 이 같은 흐름이 뒤바뀌었다. 1월부터 11월까지 매출을 비교해보니 한우가 51%, 닭고기가 49%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한우가 닭고기를 넘어섰다.

이렇게 한우와 닭고기 매출이 역전된 것은 한우 가격이 하락하면서 돼지고기, 닭고기 못지 않게 대중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의 축산물 소비자 가격을 살펴보면 '한우 1등급 등심(100g)'은 2008년 6288원에서 올해 6083원으로 하락한 반면 생닭(1kg)은 2008년 4258원에서 올해 5982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돕고자 한우협회와 대형마트 업계가 소비 촉진 행사에 적극 나선 것도 닭고기를 누르는데 주요 요인이 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0월 소비자 661명을 대상으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누출이 육류소비에 미친 영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 수산물 소비량을 줄였다는 응답자가 521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육류별 평균 수요 증가율을 추정한 결과 국산 돼지고기는 10.3%, 한우 6.0%, 닭고기 7.4%, 오리고기 4.5%, 수입 쇠고기 2.2%, 수입 돼지고기 0.8%로 분석됐다. /김대성기자 bigkim@

동부 3조원 규모 고강도 자구계획

동부그룹이 17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3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내놨다.

동부그룹은 이날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3조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마무리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2015년까지 졸업하겠다"고 밝혔다.

동부그룹은 2015년까지 주요 계열사인 동부하이텍과 동부메탈, 동부제철 인천공장, 동부발전당진 지분 등을 매각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한 증자 참여 등을 포함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룹 차입금을 절반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고 부채비율을 17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동부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자구노력 확대 요청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재무구조를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572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3	13	18	33	37	45	1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668,216,188	8
2	5개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41,967,703	53
3	5개 숫자 일치	1,282,750	1,734
4	4개 숫자 일치	50,000	81,361
5	3개 숫자 일치	5,000	1,274,889